

금융지주 “인터넷은행 설립 원해… 현 규제로 혁신 한계”

은행연합회, 금융당국에 의견 전달
영업점·BIS자기자본비율 유지해야
설립만으로 실효성 없다는 지적도

국내 금융지주사들이 자회사로 인터넷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된 상황에서 현 은행 규제로는 소비자의 필요를 모두 채우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금융지주사들이 자회사로 인터넷은행을 설립하고 싶어하는 뜻을 금융당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금융지주사를 통해 인터넷은행 설립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여기에 상당수 금융지주사는 100%자본을 보유한 인터넷은행 자회사를 세우고 싶다고 내비쳤다.

◆금융지주 “인터넷은행 설립 허용해야”
금융지주사들이 인터넷은행 설립을 요구하는 이유는 현 은행규제로는 혁신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은행들은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의 ‘은행점포 폐쇄 관련 공동절차’



국내 금융지주사들이 자회사로 인터넷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유튜이미지

개정안을 통해 영업점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더라도 영업점이 없으면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불편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5년 7281개였던 은행점포와 출장소는 2017년 7101개, 2020년 6406개로 줄었다.

게다가 은행들은 인터넷은행과 달리 BIS자기자본비율을 일정수준 이상으

로 유지해야 한다. 국내은행의 경우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BIS자기자본비율이 10.5%로 떨어지면 배당정책이 제한되고, 8%이하일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 조치를 권고받는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또한 지난해부터 바젤Ⅲ가 적용돼 규제가 강화됐다. 반면 토스 등 제3 인터넷은행은 2022년까지 바젤Ⅲ 규제

적용을 유예받고, 2023년부터 단계적 적용을 거쳐 2026년부터는 전면 적용을 시행한다. 자기자본비율이 낮으면 적은 자본으로 대졸이 가능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국내 금융지주사들도 BIB 혹은 100% 자회사 형태로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들어 다양하고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도를 해볼 만하다”며 “인터넷은행이 많아지는 것은 은행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을 넓힌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책임요구 ↑…“설립만으로 실효성 없어”

인터넷은행 설립만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미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중복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자사 모바일 뱅킹 앱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은행을 설립하는 것 자체만으로 차별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오히려 당국이 규제를 완화하고, 모바일 뱅킹 앱 수준을 더욱 끌어올리는 것이 나은 방법

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인터넷은행이 대형 사업자로 부상하고 있는 이상 기존 은행 이상의 사회적 책임 요구가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신용대출 시장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점유율은 지난해 6월말 기준 카카오뱅크 5.3%, 케이뱅크 0.6%로 5.9%를 차지해 6위권 은행인 기업은행에 근접한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카카오뱅크의 순증 점유율은 19.1%를 기록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인터넷은행들의 영업 규모나 사업성을 고려할 때 점진적으로 기존 은행들의 규제들이 도입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의 경우 허가가 필요하지만 제도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이 주도해서 인터넷은행을 이끌었다면 이제부터는 기존 금융사들이 주도해 혁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금융지주 순익 15조… 사모펀드 보상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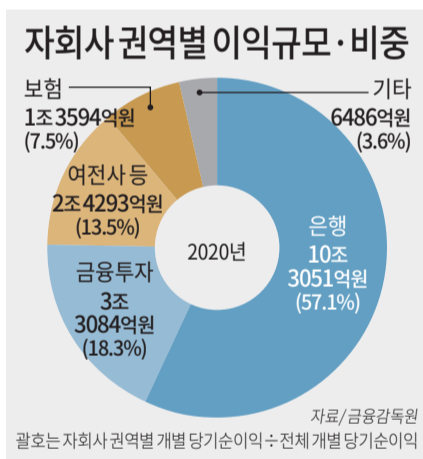
금융지주, 전년비 순익 1154억 줄어
대손충당금 전입 확대·사모펀드 등

지난해 금융지주들의 실적이 소폭 악화됐다. 은행 자회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손충당금을 더 쌓았고, 사모펀드 관련 비용도 확대된 탓이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KB·신한·농협·하나·우리·BNK·DGB·JB·한투·메리츠 등 10개 금융지주의 연결당기순이익은 15조1184억원으로 전년 대비 1154억원(0.8%) 줄었다.

자회사별로는 은행이 대손충당금 전입 확대, 사모펀드 관련 비용 등으로 1조2020억원(10.4%) 감소했다.

반면 금융투자자는 증시활황에 따른 수수료수익 증가 등으로 2325억원



(7.6%), 보험은 3555억원(35.4%), 여전사 등은 4569억원(23.2%) 증가했다.

자회사 권역별 이익 비중은 은행이 57.1%로 여전히 가장 높았지만 전년 대비로는 7.18%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금융투자자는 18.3%로 전년 대비

1.15%포인트, 여전사 등은 13.5%로 전년 대비 2.44%포인트, 보험은 7.5%로 전년 대비 1.92%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지주의 연결총자산은 2946조3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317조7000억원(12.1%) 늘었다.

자회사 권역별 자산증가규모는 은행이 196조3000억원(9.9%)이며 ▲금융투자 53조9000억원(21.1%) ▲보험 40조4000억원(18.2%) ▲여전사 등 28조4000억원(+19.5%) 등이다.

자회사 권역별 자산 비중은 은행이 74%며 ▲금융투자 10.5% ▲보험 8.9% ▲여전사 등 5.9% 등이다.

바젤Ⅲ 기준을 적용받는 은행지주의 총자본, 기본자본, 보통주자본비율은 각각 14.63%, 13.19%, 11.93%다.

/안상미 기자 smahn1@

증시호황에 연금펀드 ‘好好’… 수익률 17%

지난해 연금저축 적립금 152조

지난해 증시가 상승세를 타면서 연금저축펀드로 자금이 몰렸다.

수익률도 크게 앞섰다. 작년 보험사나 신탁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이 1%대에 그친 것과 달리 펀드 수익률은 평균 17%를 웃돌았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연금저축적립금은 151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3000억원(5.7%) 증가했다. 보험이 109조7000억원으로 전체 연금저축적립금의 72.3%를 차지했다. 펀드는 18조9000억원(12.5%) 규모로 신규계약이 급증하면서 신탁 17조6000억원(11.6%)을 앞질렀다.

적립금 증가율로는 펀드가 30.5%로

가장 높았다. 보험과 신탁의 적립금은 각각 3.8%, 0.7%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총납입액은 9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3억원(0.2%) 늘었다. 계약당 연간납입액은 25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만원 증가했다.

연금저축의 연금수령액은 3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000억원(15.4%) 늘었다. 다만 계약당 연금수령액은 293만원으로 전년 대비 9만원 줄었다.

연금저축 신규계약은 59만4000건으로 109.6%, 해지계약은 27만9000건으로 1.3% 늘었다. 연금저축펀드의 신규계약은 46만8000건으로 279.3% 급증한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12만6000건으로 21.2% 감소했다.

/안상미 기자

토스, 매출 2898억… 전년비 230% 증가

“올해 매출 1조 도전”

토스의 지난해 실적이 개선됐다. 매출규모는 3배가 넘게 늘었고, 영업손실도 줄었다.

토스는 6일 작년 매출이 2898억원으로 전년 대비 230%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725억원으로 전년 -1154억원 대비 적자폭이 축소됐다.

토스 본체의 플랫폼 비즈니스는 영업손실이 전년 1154억원에서 224억원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토스 관계자는 “마케팅비를 절반 이상 축소했지만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역량을 확인한 것”이라며 “토스가 연간 기준 매출 성장과 손익

개선을 동시에 이룬 것은 2015년 서비스 출시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토스는 지난 5년간 매년 매출액이 2배 이상 급증했다. 사업 규모가 확대된 최근 3년을 기준으로 매출액의 연평균 성장률(CAGR)은 167%에 달한다.

올해는 사업 확대를 통해 매출 1조원에 도전할 계획이다.

토스 이승건 대표는 “경쟁사와 비교해 매출 규모도 우위지만 매출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특정 분야가 아닌 금융의 전 영역에서 고른 성장을 보이는 것이 차별점”이라며 “올해는 본격 성장이 예상되는 계열사들의 실적이 반영되면서 연결기준 매출 1조원 돌파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토스는 지난해 LG유플러스로부터 결제사업부분을 인수해 토스페이먼츠를 설립했다. 토스증권 및 토스뱅크(가칭), 토스 인슈어런스, 토스베트남 등 주요 계열사의 신사업을 위해 총 1890억원의 투자를 단행했다.

지난 2월 토스증권이 출범했으며, 토스뱅크(가칭)는 본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토스 플랫폼은 이용자 수 및 서비스 활성화 측면에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토스 이용자는 1900만명이다.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이 토스를 사용하는 셈이다.

특히 본인의 계좌나 카드를 등록해 자산관리를 하고 있는 고객은 990만명에 달한다. 누적 카드 등록수는 2500만개며, 누적 계좌연결수는 2300만을 넘어섰다.

/안상미 기자

카카오뱅크 ‘첫 기부 캠페인’ 5만명 참여

‘어르신 돕기’ 1만7000여명 선택

카카오뱅크는 미니(mini) 고객인 10대 고객과 ‘첫 기부 응원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10일간 약 5만 명의 청소년들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6일 밝혔다. 모인 기부금은 총 5000여만원이다.

‘첫 기부 응원 캠페인’은 만 14세~18세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인 미니 고객을 대상으로 했다. ‘유기동물 돕기’, ‘환경보호’, ‘어르신 돕기’ 중 1개를 골라 응원하면 응원 1개 당 카카오뱅크가 1000원을 기부하는 이벤트다. 10대의 관심사를 고려해 선정된 기부 대상 중 ‘어르신 돕기’는 1만7000여명의 청소년들이 응원에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카카오뱅크가 응원 1개 당 1000원씩

매칭해 모인 총 5000여만원의 기부금은 각각의 목적에 맞게 유기 동물 구조 후원 단체와 환경단체, 사회복지관 협회에 전달됐다. 올해 3월 말까지 진행된 기부 내역과 스토리는 카카오뱅크 블로그에 상세하게 게재해 누구나 볼 수 있게 했다.

‘어르신 돕기’를 위한 후원금은 한국 사회복지관협회에 전달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끼니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33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식료품 및 생활용품으로 제공됐다. 유기동물 구조 후원금은 동물 보호단체 ‘카라’를 통해 낚은 구조장비 정비나 새 의료장비 구입에 쓰였다. 환경보호 후원금은 환경 운동연합의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 운영에 사용됐다.

/안상미 기자